

‘농촌협약 공모’ 나주·화순·강진·고흥 선정

5년간 각각 국비 300억씩 지원 정주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기초생활사업 등 패키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나주, 화순, 강진, 고흥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5년간 국비 120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43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를 선정했다.

시·도별로 전남과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경남·전북 각 3개 시·군, 충남·충북 각 2개 시·군, 강원·경기가 각 1개 시·군이다.

선정 시·군은 연말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보완 작업을 실시하며, 2022년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별도 협약을 한다. 이를 통해 5년간 각각 국비 최대 300억원으로 협약에 담긴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전남도가 이번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된 것은 연

초부터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대비가 적중했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자체 공모 대비계획을 세우고 중앙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룰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보완했다. 공모 선정의 전제 조건인 시·군 전담부서 신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등을 시·군 관계자와 협의해 시행을 독려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촉, 10여 차례 컨설팅 위주 평가를 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유기농 명인 발굴 나섰다

전남도가 최근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대세를 이룬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기농 명인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도인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22명의 유기농 명인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친환경농업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배출된 유기농 명인 가운데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14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한 배 명인 조효의 씨, 클래식과 전통음악으로 ‘그린음악농업’을 실천한 배 명인 오경배 씨, 17년째 무경은 농법으로 오이를 재배한 김태현 명인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일찌감치 농사철학이 담겨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남도는 올해도 유기농 명인 발굴을 위해 그동안 명인이 배출되지 않았던 지역과 품목 위주로 오랫동안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유기농업을 묵묵히 실천해 온 농업인 등 숨은 유기농 명인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농 명인으로 추천된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유기농업 경력을 비롯 특장적 농법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에서 2021년도 유기농 명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우리 전남이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품목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저비용·고품질 유기농법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자전거·보행자 횡단 영산강 전용교량 어등교 개통

광주시는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 인근에 자전거·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전용교량(가칭 어등교)을 개통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영산강변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강을 횡단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해 극락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자전거 기반시설을 확충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68억여원을 들여 2019년 1월 교량 설치공사를 착공해 지난 5월 완공했다. 이번 개통으로 영산강 횡단 시 멀리 우회해야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광산구와 서구 간 자전거 이용 접근성이 높아져 자전거 이용률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남진 광주시 도로과장은 “자전거·보행자 전용교량인 만큼 친근한 공공미술작품을 교량난간에 설치해 영산강을 여행하듯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SK텔레콤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 IDQ코리아 하민용 공동대표와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해안남중권에 기후변화 대응 환경벨트 조성

전남도, COP28 유치 용역 보고

전남도가 남해안 남중권에 동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벨트를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탄소사냥관 브랜드를 확산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활동을 가속화한다.

전남도는 17일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전략과 개최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착수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COP28 개최 요건에 따른 환경·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 남해안 남중권만의 유치전략 발굴과 제안서 제작을 위해 지난 4월 착수에 10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남해안 남중권의 개최 타당성 강화와 다른 경쟁도시 대비 차별적 유치전략, 최적의 COP 개최지 조성,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부 전략으로 ▲동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 벨트 ▲탄소중립 테스트베드 K기후변화 표준화 ▲민간 주도 넷제로타운 조성 ▲탄소사냥관 브랜드 확산 ▲총회장 등 인프라 조성 ▲하이브리드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대통령이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제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남해안 남중권은 한려해상, 람사르 습지, 지리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기후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 기후변화 이슈를 논의할 수 있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과 철강, 화학발전 산업이 집적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뉴딜정책을 통한 탄소중립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 줄 최적지”라며 유치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양자산업 두마리 토끼 잡는다

광주시, SK텔레콤·IDQ와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 협약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SK텔레콤, IDQ와 양자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과 IDQ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등 양자 산업 생태계를 광주에 구축하고 양자 기술을 활용한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연구 개발(R&D), 공공·행정 분야에 관련 기술이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협약 주체들은 정부 마중물 사업인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 수주에 힘쓰고 정부에도 정책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협약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문가 세미나도 열려 산업 전망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인 SK텔레콤과 양자 산업 대표기업인 IDQ,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자 정보통신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필수 기반 요소인 핵심 보안기술의 하나다. 해킹과 도청 위협으로부터 자율 주행차, 금융 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산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8월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와 입주예정 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및 산업 구조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의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방문과 유선 조사 방식을 병행하며, ▲기업 기본 정보 및 활동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식 ▲기업 애로사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관련 현황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내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입구)